



맨유, 내일 밤 EPL 새 역사 쓴다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다 19번째 패권 도전 블랙번에 비겨도 우승... 박지성 출격 대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 기록인 19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맨유는 14일 밤 8시4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블랙번의 이우트파크에서 블랙번 로버스와 2010-2011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인다.

정규리그 두 경기를 남겨둔 맨유는 22승10무4패(승점 76)로 2위 첼시(승점 70)와의 간격을 승점 6점 차로 벌려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블랙번과의 최종전(23일)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컵을 차지한다. 리버풀과 나란히 통산 18차례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던 맨유는 이번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 영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쓴다.

맨유는 오는 29일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예정돼 있어 정규리그를 제패하고 나서

2007-2008시즌 후 3년 만의 '더블 우승'(2관왕)을 기대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3년 연속이자 통산 21번째 우승 감각을 만끽했다.

방문 경기라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맨유가 블랙번을 제물로 통산 19번째 우승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맨유는 9일 라이벌 첼시와의 36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낙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28일 벌어졌던 15라운드 홈경기 때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무려 5골을 쏟아내는 맹활약을 펼친 덕에 블랙번을 7-1로 대파했다.

당시 블랙번을 상대로 시즌 3호골을 터뜨렸던 박지성도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첼시와의 36라운드 때 왼쪽 날개로 풀터인 활약하며 시즌 5호 도움을 배달했던 박지성은 이번에도 선발 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성은 현재 시즌 7골 5도움으로 공격포인트 12개를 기록 중이어서 한 개를 보태면 지난해 이청용(볼턴)이 작성했던 한국인 프리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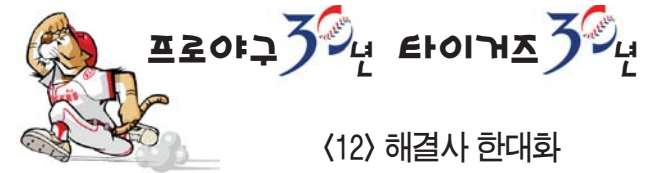
맨유 알렉스 퍼거슨 감독

리가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13골·5골 8도움)와 같아지게 된다.

이청용(23·볼턴)은 같은 시간에 블랙번과의 원정경기를 준비한다.

이청용은 4월10일 웨스트햄과의 32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린 이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해 한 달 넘게 공격포인트 11개(4골 7도움)에 묶여 있다.

8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76분을 뛰었던 이청용이 블랙번의 결승을 흔들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12> 해결사 한대화

해태 타이거즈의 1986시즌은 한대화의 트레이드 거부 파동으로 문을 열었다.

198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속직 일본과의 결승전 극적인 3점홈런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대진-동국대 출신의 국가대표 한대화가 1983년 OB 베이스에 입단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입단했던 한대화는 김성근 감독의 훈련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주루로 출대했으며 시즌동안 0.256(8홈런)이란 초라한 성적을 냈다.

해태는 양승호-황기선을 OB에 내주고 한대화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며 내야수비와 중심타선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한대화가 신생팀이자 고향팀인 빙그레 이글스로 이적하기를 희망하며 해태로의 이적을 거부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달여 만에 이적에 동의하면서 '한대화 트레이드 거부' 파문은 일단락됐다.

이 파동은 훗날 트레이드 거부 파동의 원조가 되었고, 한대화는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고향 팀으로 23년 후에야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금의환향할 수 있었다.

OB서 굴러들어온 복덩이 해태 4연패 신화 창조하다

한대화의 이적으로 한숨을 돌린 해태는 이번에는 내용을 꺾어안았다.

'박힌 돌' 이순철과 '들어 온 돌' 한대화 간의 3루수 자리 다툼이 그것이었다. 3루수 자리가 겹쳐 둘 중 하나는 외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에서 둘의 자존심 대결을 결에서 지켜보면 필자는 이순철과 한대화를 중심사 길목인 '운림각'이란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둘 사이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냈다. 필자가 제안한 것은 주력과 재치가 빼어나 외야수비가 가능하니 아무인 이순철이 미대를 보고 한 발 양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순철은 중견수로서, 한대화는 3루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출한 스타로 야구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훗날 '3루수-해결사' 영입과 '박힌 돌, 굴러온 돌'의 아이러니는 김성현(LG)과 이범호(소프트뱅크)로 이어진다.

또한 '해결사'가 영입된 시즌에는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이 근거를 믿고 필자는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우승을 예견한 바 있다.

이 과정을 계기로 필자와 한대화·이순철·선동열은 의형제연으로 정을 나누고 있고, 명품 아우 셋은 모두 프로 야구의 꽃인 감독직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바 있다.

김세 왕조에 한·이·선이란 명제상들이 가세하여 해태의 명가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1986시즌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 세 선수와 '가을 까치' 김정수의 활약으로 4연패의 신화 창조의 서막을 올렸다. '해결사' 한대화는 승리타점(16) 1위 3루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기성용 3호 도움... 셀틱 3-0 승리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22)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다. 셀틱은 12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타인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하트 오브 미들로시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기성용은 후반 3분에 상대팀의 이언 블랙에게 반칙을 한 뒤 경고를 하나 받았지만 곧 이은 공격에서 후퍼의 추가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아스팔트 위의 피겨 스케이팅'

15일 영암서 DDGT 챔피언십

경주용 자동차 수십대가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서킷 위를 질주하다가 곡선 주도로 접어들자 일제히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코너를 벗어난다. 차가 미끄러지는 상태를 트랙을 돌며 예술성을 가리는 '드리프트(Drift)'라는 자동차경주 종목으로, 심판들은 누가 얼마나 멋있게 코너링을 했는지를 눈여겨보고 점수를 매긴다.

코너링 때의 예술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고 해서 '아스팔트 위의 피겨 스케이팅'으로 불린다.

15일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에 가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15일 '2011 한국 DDGT 챔피언십 제2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경기를 치르는 DDGT(Drift, Drag, GT, Time Trial)는 지난 2006년 5월 첫선을 보인 종합자동차 대회로, 국내에 최초로 드리프트(Drift)를 도입하고 레이스의 기초로 불리는 짐카나(Gymkhana)와 스프린트 레이스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DDGT는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는 드리프트를 비롯, 스프린트 방식으로 순위를 겨루는 슈퍼 투어링, 짐카나, 타임트라이얼, 목표 기록을 달성하는 타임챌린지 등 5개 경기에 130여대가 참여한다.

짐카나는 지그재그, 90도 회전, 180도 회전, 연속8자 돌기를 하면서 500m 코스를 최단 시간에 통과하는 경기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르샤 스페인리그 3연패

통산 21번째 우승

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정규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세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12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시우디데 데 발렌시아

야 경기장에서 열린 레반테와의 2010-2011시즌 프리메라리가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전반 28분 사비 에르난데스의 도움으로 세이두 케이타가 헤딩 선제골을 넣어 앞섰다가 전반 41분 펠리페 카이세도에 게 동점골을 내쳤다. 하지만 이날 무승부로 29승5무2패(승점 92)가 된 바르셀

로나는 2위 레알 마드리드(27승5무4패·승점 86)와의 격차를 6점으로 벌려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바르셀로나는 이로써 2008-2009시즌부터 3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오르며 통산 21번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컵대회 8강 탈락... "K리그에 집중"

강원·대전 상대 10라운드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가 리그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K리그 10라운드 승리를 위해 출격한다.

광주와 전남은 11일 열린 리그컵 5라운드 경기에서 나란히 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앞선 경기에서 1승3패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8강에서 탈락했지만, 전남은 이날의 양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8강을 노려볼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3승1무로 선수를 지켰던 전남이 0-1로 부산에 털리며 잡혔고 광주마저 정에 멤버가 출출당한 울산에 1-2 석패를 당하면서 4승 1패의 부산과 울산이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박기동과 지동원이라는 신예 공격수

를 앞세운 광주와 전남은 정규리그 승리를 통해 리그컵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강원 FC와의 경기를 위해 강릉종합 운동장으로 떠난다. 신생팀 광주는 참체에 빠진 K리그 2년차 강원을 상대로 시즌 네 번째 승리를 노리게 된다.

광주는 11일 컵대회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김영광·설기현·곽태휘·김신욱 등 국가대표 출신들로 라인업을 구성한 울산을 압도하면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줬다.

또 부산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공격수 박기동도 컵대회를 통해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광주의 공격무트가 한 층 더 다양해졌다.

전남은 14일 오후 3시 안방에서 대전 시티즌을 제물 삼아 2연승에 도전한다.

전남은 수원과의 9라운드 경기에서 지동원과 이현승의 골로 2-1 역전극을 펼쳐며 3경기만에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이날 승리로 7위까지 올라선 전남은 부산으로 고전했던 지동원의 시즌 첫 골까지 터지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동원은 부산과의 리그컵 대회에서도 후반 15분 투입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남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동원의 공격력이 본래에도 오르면서 전남의 순위 싸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용기자 wool@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보장)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아간반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사, 행정, 행정, 국사, 헌법, 회계, 경제, 교육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정보와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보장)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1월